

광주매일신문 '올해의 기자상' 대상·우수상 2관왕

안재영 기자 '고립무원 무적자' 연재 영예의 대상

김재정·양시원·김상호·김애리 기자 우수상 수상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안재영 기자가 '고립무원 무적자' 연재보도로 광주전남기자협회 '2024 올해의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정재부 김재정 부국장·양시원 기자와 지역특집부 김상호 부장, 사진부 김애리 부장은 '무안군, 7.8ha 뿔흙 불법 성토 묵인 방조 의혹' 연속 보도로 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2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2024 올해의 기자상' 대상과 신문·통신, 방송, 사진, 편집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 등 10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상 수상자인 안재영 기자는 '고립무원 무적자' 보도를 통해 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신분이 없어 보호는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널리 알렸고, 이후 이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취재·보도 과정에서 특정 후견인과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과 협력해 50여 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이가 이름을 갖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기자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취재에 응해 준 대상자와 여러 관련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무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무안군, 7.8ha 뿔흙 불법 성토 묵인·방조 의혹' 보도는 택지개발지구인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대규모 뿔흙 불법 성토 사실과 관련 무안군의 부적절한 행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부당



12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기자협회 2024 올해의 기자상'에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안재영 기자가 대상을, 정재부 김재정 부국장·양시원 기자와 지역특집부 김상호 부장, 사진부 김애리 부장이 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항 등을 수개월간 심층 취재 및 기사화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양시원 기자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하겠다"며 "아

울러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이날 '2024년 광주전남기자협회 송년의 밤'도 함께 진행했다.

/임재만 기자

류영현 KBC광주방송 11대 사장 취임



KBC광주방송은 류영현(사진) 부사장이 제11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13일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류 신임 사장은 1991년 세게일보 편집국 기자로 언론에 입문, 문화부장과 온라인뉴스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에는 뉴스통신사인 UPI뉴스로 자리를 옮겨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2021년부터는 KBC광주방송에서 부사장 겸 서울광역방송센터장을 맡아 일해왔다.

류 신임 사장은 상명대일반대학원에서 문학박사(콘텐츠학) 학위를 취득한 콘텐츠전문가로,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지방공기업 '저출산 극복 협의체' 출범

광주환경공단은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 지방공기업과 협력해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2일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총 7개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사회 분위기 조성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식 후에는 광주 상무역 일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Let's baby' 캠페인을 진행하며 각 기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극복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 '사랑의 김장 나눔'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평명광주 김치(대표 문오권)' 다목적체험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광주지역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 임직원들과 광주지역 발달장애인협회 광산구지부, 장애인 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해 1천kg 상당의 김치를 담갔다.

김성진 원장은 "직접 김장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큰 보람과 에너지를 얻었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7월 광주지역 소외계층에 쌀(10kg 2포대)과 함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기수희 기자

부음

▲박선숙씨 별세, 조경희(목포해양대 수학과 교수)·민규(산들요양병원 원장)·영규(군포 지샘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씨 모친상=발인 13일(금) 오전 7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1층 VIP실(062-250-4455).



미래인재UNIV, 지역 인재육성 공로 '광주시장상'

(사)미래인재UNIV(이사장 김세화)는 12일 "전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과 함께 2025년 예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예정 프로그램은 ▲명문대 탐방 ▲국제리더십캠프 ▲영어캠프 ▲스키캠프 ▲디지털작업 ▲웹툰 ▲AI·로봇 ▲인공지능 사이언스 등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이টে이프로 구성됐다.

김세화 (사)미래인재UNIV 이사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미래인재UNIV는 올해 상반기 교육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전국 2천200개 제공 기관 중 이용자 만족도 최고점(25점 만점)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인센티브를 받았다. /오복기 기자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중기부 장관상

담양군은 "최근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탁월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탁월특구 선정은 전국 18개 특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전문가 평가 및 민간특구위원회와 대국민 평가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특구 운영 추진 전략과 더불어 기업유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 기여도를 함께 평가했다.

담양군은 풍부한 인문학 자원을 바탕으로 인

문 중심 교육도시로서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군민 맞춤형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등 생태정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생태도시와 인문학 대표 군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특구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영암경찰, 경찰발전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영암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찰발전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의 참여치안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원부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범죄 예방 민·관·경 합동 순찰 등 참여치안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평온한 지역 치안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도 경찰과



경찰발전협의회가 힘을 모아 안전한 영암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전남농기원, 농진청 '지역특화작목 연구 우수' 대상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12일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농업과학기술 성과 공유 대회'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성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무화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상품 개발 및 저장 유통 개선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유자 동해 및 병해충 예방 관리기술 개발과 수출 경쟁력 향상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라 무화과의 겨울 생산기술 개발과 소포장 유통 시범사업, 무화과잎을 이용한 미

백 세럼·크림, 어린 무화과 추출물 활용 무화과 샴푸, 알룰로스 무화과 잼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무화과 산업 발전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유자 가공 부산물인 유자씨 오일을 활용한 바디화장품(바디워시, 바디로션, 미스트), 유자박을 이용한 뇌건장 젤리, 조미식품, 휴대가 편한 유자 발포청 등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 전남 농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손장환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민·산·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 연구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보은축산, 나주시 취약계층에 성금·물품 기탁

나주시는 "최근 노안면 소재 친환경 돼지고기 가공 전문업체 보은축산이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300만원과 한돈 1kg 100박스, 두바이 초콜릿 400개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용균 보은축산 사장, 조종권 나주발전시민연대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평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보은축산과 조종권 회장의 협력으로 성사됐다.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총 600만원 상당으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종권 회장은 "보은축산의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균 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지역사회



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소의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준 보은축산과 나주발전시민연대에 감사하다"며 "기탁된 물품과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장성군산림조합, '행복이동빨래방 차량 후원' 동참

장성군산림조합은 "최근 '행복이동빨래방 차량 후원'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방문 세탁 서비스 '행복이동빨래방'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관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세탁을 도맡아 하고 있다. 최근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구입을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설재경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기탁할 수 있게 도와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산림조합의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산림조합은 금융, 산림사업, 수목



장림,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뿐 아니라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통해 산주·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